

표절과 차용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시각 및 제품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Modern Design in Point of Appropriation & Plagiary

윤민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Yun, Min-Hie

Dept. of Art & Design, KHU

• Key words: Appropriation, Plagiary, Modern Design, Visual Design, Product Design

1. 서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예술은 다양성과 함께 상호 절충적, 퓨전(Fusion)화 양상을 많이 띄고 있다. 이성 위주의 서구 중심 문화에 바탕을 둔 모더니즘 시대와는 달리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예술양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시대적 한계 의식과 함께 과거나 동시대의 예술과 문화유산에서 많은 조형적인 유산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예술의 표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리 창조적인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양식의 특징 속에서 살펴본다면 어쩌면 모방은 필연적인 것이다. 원작과의 외관의 시각적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표절이라고 규정함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60-90년대의 대표적인 시각 및 제품디자인 표현 경향을 중심으로 현대 조형예술의 다양한 표현경향과의 상호 교류 및 접목하는 경향을 표절과 차용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역사 및 문화에 바탕을 둔 작품 위주의 조형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2. 표절 및 차용의 사례연구

표절 및 차용의 시각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각 장르간의 경계 허물기(예술, 공예, 디자인의 영역 허물기), 유머, 유티, 장식성의 회복, 재현적, 복고주의적 경향, 혼성적 경향, 대중적 다원론적 표현 경향, 오브제(objet) 표현경향 등을 현대 미술의 상호 연관성을 회화, 시각 및 제품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0년대의 팝아트와 팝디자인, 옵아트와 옵디자인의 상호 영향, 이태리의 알키미아 Memphis 그룹의 디자인 그리고 독일의 스틸레토 스튜디오와 신표현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60년대의 팝아트(Pop Art)는 산업사회의 표현 매체와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대량생산품의 재구성에 의해 대중문화를 미술세계로 동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사회에 대한 역설적 비평을 제시한다.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팝 아트의 역사적 의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환적인 위치에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표현과 반복적인 형태가 예술의 주제로 등장하며 예술과 일상성의 구별이 와해되기 시작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상성의 예술화를 시도한 팝 아티스트의 작업과 함께 디자인에서도 보다 자유로운 형태, 유머스러운 디자인, 다채로운 색상의 표현 경향이 1960년대 이후로 등장하였다. 피에로 카티외 2인(Piero Gatti, Cesare Paolini, Franco Teodore)이 제작한 사코(Sacco, 1968)의 자유머와 함께 밝은 색채로 일상에 즐거움을 주며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유동적인 의자이다. 당시의 옵아트의 2차원을 평면을 통한 3차원적인 착시를 시도한 옵아트의 시각적인 작업 경향은 현대의 제품, 3차원의 공간에 적극 활용되었다. 바자렐리(V. Vasarely)의 2차원의 시각작업들은 당시의 텍스타일, 공간 디스플레이,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바자렐리의 작업(Kontosh, 1967-68)경향은 Verner Panton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카페트 디자인(Tapis Geometry, 1961), 실내 조명 및 디스플레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밀라노를 중심으로 형성된 1970년대말 80년대의 전위적인 디자인 그룹인 알키미아(Alchimia)와 멤피스(Memphis)그룹의 디자인 경향은 특히 과거의 표현양식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멘디니의 <칸디시, Kandissi 카나페 1979>는 칸딘스키 작업에서 시각적인 조형요소를 차용하고 있다. 조형 예술의 영역에서 캔버스 위의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는 과거의 전통미술을 새로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경향은 독일의 전위적인 디자인 그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디자인 경향의 하나인 베를린의 스틸레토 스튜디오(Stiletto Studio)의 작업은 산업화 이후의 대량소비사회에서 대량생산된 슈퍼마켓 카트를 제품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서 예술로의 선회, 즉 오브제적인 표현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에서 오브제적인 표현 경향은 전위적인 1980년대의 디자인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캔버스위의 이젤화의 새로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경향은 독일의 전위적인 디자인 그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회화에서 신표현주의는 의자, 테이블, 라디오 등과 같은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하기만을 유일한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 걸작품(예술작품)에 가까이 가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에서 예술로의 선회하는 경향은 미술관의 발달을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예술작품을 도입하려는 문맥 속에서 행하여진다.”¹⁾ 신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디자인 경향의 하나인 베를린의 스틸레토 스튜디오(Stiletto Studio)의 작업은 산업화 이후의 대량소비사회에서 대량생산된 슈퍼마켓 카트를 제품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서 예술로의 선회, 즉 오브제적인 표현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에서 오브제적인 표현 경향은 전위적인 1980년대의 디자인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은행그래픽 모티브와 몬드리안의 구성작업, 하나은행과 바로셀로나 올림픽 심벌 마크의 상호 비교 그리고 영화 축제의 문자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구성: Composition>작업의 황금비례에 바탕을 둔 비대칭적인 모듈(module)과 삼원색과 무채색의 표현은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가 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몬드리안의 삼원색과 무채색의 비대칭적인 구성과 유사한 이미지를 1960년대의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의상디자인, 프랑스 로레알사의 무스의 포장디자인, 한국의 한미은행의 그래픽 모티브 등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하나은행의 ≡형태의 심벌디자인은 바로셀로나 올림픽심벌 마크의 유사성, 그리고 축제의 문자디자인이 서예가의 서체로부터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사례들을 통하여 현대조형예술은 서로의 영역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차, 접목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3. 표절과 차용의 기준은?

1980년대의 많은 작가들은 대중매체와 키치(Kitsch)의 이미지를 전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작품으로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모방, 표절의 시각에서보다는 차용, 패러디 등의 의미를 인정하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현대 디자인에서 표절시비는 항상 거론되어온 문제이지만, 절충적이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하의 예술에서 타인의 작품을 전용하는 행위는 정당하며 표절 행위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하의 예술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세계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시대적인 한계의식과 함께 혼성 모방적인 요소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표절 시비는 궁극적으로 법의 효력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1970-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적인 예술 현상의 하나인 장르의 해체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접목으로 기존의 예술의 분류방법이 때로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모더니즘 하에서 조형예술의 분류 방법이었다던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이분법적인 분류의 와해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의 교류와 접목이 특징적인 경향으로 등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및 동시대의 이미지에서 많은 차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디자인의 세계에 표절과 차용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디자인 교육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래픽스, 1994.
-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1997.
-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구너법>>, 지식산업사, 1997.
- 박석우, <<이발소그림>>, 동연, 1999.
- <<연극영화관련저작권문답식 해설>>, 1991.
- 김수현, <<예술작품에 대한 표절 판정의 논리>>, <미학>, 한국미학회, n. 18, 1993, p. 28.
- de NOBLET Jocelyn, *Design : le geste et le compas*, Somogy, Paris, 1988.
- Guidot Raymont, *Histoire du design 1940-1990*, Hazan, 1994.
- Woodham Jonathan, M., *Twentieth-Century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1). Jocelyn de Noblet, *Design : le geste et le compas*, Somogy, Paris, 1988, pp. 228-235.